

고흥,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해결사 역할 특출

건축인허가·토지합병 등 신청 접수·민원 상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주민 호응 속 현장에서 해결사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최근 고흥읍 사동마을에서 군청,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장애인 등이동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황실을 운영했다.

앞서 군은 현장 민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민원인 수요에 맞는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져 현장 민원실

은 주민의 민원 해결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일 1~2회 운영되는 현장 민원실에서는 ▲스마트 국토정보 활용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 ▲훼손된 건물번호판 신청·접수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접수 ▲토지·지적 관리 민원 상담 등 총 364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사동마을 주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살고 있는 집에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담당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와 놓어준 주택 건물대장 생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주셔서 해결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통해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더 높이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현장에서 해결사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장흥군, 돌 사진 촬영 지원

장흥군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돌사진 촬영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돌사진 촬영은 출산장려에 부응하는 2023년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이다.

군은 전통과 현대식에 맞춘 돌상 사진과 첫 생일을 기념하는 가족사진까지 함께 촬영해 액자 3개에 넣어 전달했다.

돌사진 촬영에 참여한 가족은 “특별한 사진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양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라남도 군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양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생애 초기부터 아이들을 보살피는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와 희망인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 MZ 공무원들과 간담회

김희수 진도군수가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7급 이하 MZ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최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커피와 과일 등을 함께 먹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직급, 직렬 등으로 구성된 직원 간담회는 ‘나의 목소리를 들려줘’라는 소주제로 평소 근무하면서 느꼈던 업무처리 개선방안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나누었다.

특히 인사문제, 후생복지 건의사항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MZ 세대들의 고민거리, 직장 상사들에 대한 바람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김희수 진도군수는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의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낡은 관습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번에 군수님과 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희수 군수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잠재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 발전하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재평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관광 비전 선포식 개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등 전국의 MZ 체류단,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완도군관광발전협회

회원 및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해양치유산업 핵심시설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

선포식은 국악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우철 완도군수의 ‘완도 관광’ PT, 국내 여행사 및 유관기관과의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어 인플루언서, 유튜브, 파워블로거, 관광 사진작가 등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 명예 홍보대사 위촉, 완도군관광발전협회의 지역 관광 활성화 다짐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비전 선포 및 세리머니 등을 할 계획이다. /백나영 기자

해남, 예비맘 위한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해남군은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신부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건강 교실은 4월 5일부터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임신·출산 과정의 이해와 모유수유 방법 등 이론교실, 신생아 육아용품(애착인형) 만들기, 원예 교실(나만의 정원 만들기)로 총 4회 구성된다.

교육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태교·출산 과정의 이해, 분만 호흡법, 성공적인 모유수유 방법 및 신생아 목욕법과 육아용품 만들기, 원예교실 등 이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예비맘들에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분만과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증진

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신부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에 전화(061-531-3733)로 신청하거나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며 관내 임신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보성군, ‘마을 세무사’ 운영

보성군은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 세무사’는 평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의 군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보성군은 많은 군민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비롯해 홍보물 제작 배포·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중수 기자

